

목어

역지사지의 의사소통

의약분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의사들이 폐업하고 환자들이 최소한의 치료를 받지 못하여 많은 국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한 측인 의사들은 환자들을 불모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았다 하여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고, 의사들의 자탄과 절망감 또한 높아졌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 구조에 잘못된 점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국민들은 논란의 중요한 당사자임이 분명한 의사들이 충분히 그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과 지면상의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죽어 가는 환자들을 외면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을 매도하기에 비뚤었다.

과연 그 동안 의료보험수가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의사들이 길고 고된 수련과정을 거쳐 받는 보수가 그들이 의과대학을 지원할 때에 기대하던 수준이었는지, 보험제도 등 여러 보상체계의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의사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처치를 하지 못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의사들을 목하여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의사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지탄대상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 때문만은 아니다. 병·의원에서 겪어왔던 저간의 여러 가지 경험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분들이 제대로 시행하려면 논의 자체가 바깥쪽 싸움에서 시작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행정 당국에 대하여도 한마디 하고 싶다. 우선 의약분업을 시행하고자 한 의도는 높이 평가한다. 장관 재임 중에 시끄러운 일은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피하고 밋고나고 매통같은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해 일단 사회적 논란이 엄정할 것이 뻔한 일을 맡고 행한 점은 칭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의도만 앞세운 점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에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아쉬운 현실이다.

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학원 교수)

先 공원제도 개선 後 관람료 해법

‘사찰과 국립공원 올바른 관계...’ 워크숍

국립공원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하자는 제안에 조계종과 환경단체, 국립공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함으로써 국립공원 관리, 사찰과 국립공원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참여연대가 신홍사와 천은사를 상대로 낸 문화재관람료 반환 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6월28일 조계종총무원과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가 공동주최해 ‘사찰과 국립공원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으로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았다. 참여연대도 소송을 내며 문화재관람료를 돌려받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국립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 방향을 찾자는 것이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이런 워크숍으로 취지에 부합하는 논의의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소송 제기의 이유가 없어졌다.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는 국립공원의 관리라는 큰 틀의 문제이며,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풀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 참여연대도 “국립공원 제도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참여하겠다”며 동의하고 있다.

이런 워크숍을 통해 공원공단이라는 제도의 문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 방법, 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 불교의 역할 등 네 가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 공원공단이라는 제도의 문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 방법, 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 불교의 역할 등 네 가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공원관리청 설치 필요

국립공단의 문제
국립공단의 문제점은 부실한 제도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부실한 법 조항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된 도로·삭도(케이블락), 호천, 승마장 등 체육시설 등 8개의 공원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실악산 한라산 케이블락, 속리산의 온천, 계룡산 민속박물관 설치가 합법화되고 있다.

환경부 자연공원과의 사무관 1명이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공원공단 ‘관리’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공원공단 이사장을 대통령이 정치적 안배의 차원에서 임명하고 있어 환경부의 산하기관이지만 상징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용스님은 “자연공원법 17조에 공원관리 업무를 위해 별칭으로 공원관리청을 두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공원관리공단이 이를 대항하고 있는 것은 편법”이라며 차제에 공원관리청의 설치를 주장했다.

그동안 공원공단의 반환경적 행태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양정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장은 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부동산 시세 차이를

노린 공원공단 직원들의 부동산 소유, 계룡산 국유림 열값 불하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입장료 폐지의견 많아

공원입장료와 관람료징수 방법
공원관리의 합리적인 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번 워크숍에서 몇 가지 개인이 제시돼 이후 활발한 토론이 기대된다.

공원입장료의 경우, 폐지 의견이 많았다. 오규근 교수는 “국토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가 보존된 3.8%의 국토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200억원 정도를 국에서 지원한다면 국립공원의 생물자원 보호와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현용스님은 “입장료 수입의 38%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등 공단 유지에 대한 부담이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부장은 공원입장권과 문화재관람권을 분리 대표화되, 문화재관람료의 인상 및 공원입장료의 문화재보수비 지원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공원입장료 폐지를 전제로 문화재 유지·보수비의 정부 지원 및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지 보상 정부 과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의 면적은 육지 3824km², 해상 2648km²로 모두 6473km². 육상면적 가운데 사유지가

◇ 육상 국립공원 토지소유 비율(%), 면적=km²

공원명	면적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사찰지
지리산	440.5	49.8	0.05	35.7	14.4
경주	138.2	10	-	84.7	5.4
계룡산	61.1	40.8	6.1	43.2	9.8
설악산	373	84	0.05	9.4	6.7
속리산	283.4	46.2	0.01	39.3	14.5
한라산	149	96.8	-	1.2	-
내장산	76.1	37	0.17	35.4	27.4
가야산	80.2	19.1	15	24.3	41.5
덕유산	219	73.5	0.07	24.7	1.8
오대산	298.5	70.2	-	10.7	19.1
주왕산	105.5	49.2	-	15.8	35
북한산	78.5	61.5	-	35.1	3.4
천마산	182.1	59.1	-	40.4	0.5
월악산	284.5	71.4	-	28.4	2.2
소백산	320.5	76.3	-	23.3	0.4
변산반도	157	64	4.9	28.1	2.1
월출산	41.3	48.4	2.9	32.6	16.1

절반에 가까운 44.7%(사찰 소유지는 8.3%)에 이른다. (표 참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합리적 보상 또는 주민 자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자연환경 훼손을 동반하는 불사나 정부 도로 확장, 주차장 시설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행위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 주민들의 불만을 크다.

이를 빌미로 선거철만 되면 공원 구역 재조정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어 국립공원 구역 축소 논란이 한복되고 있다.

사유지 보상 문제는 문화재관람료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어서 이후 논의의 핵심이 될 가능성도 크다.



◇ 사찰과 국립공원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정책워크숍을 통해 조계종과 시민·환경단체 등이 국립공원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워크숍은 조계종총무원과 중화사회문화위원회 공동주최로 6월 28일 송헌클럽에서 열렸다.

워크숍 이모저모

본사주지 등 높은 관심

○...워크숍에는 참여연대가 낸 소송의 당사자인 천은사 주지 종고스님과 신홍사 사무장,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 총무국장 종현스님, 기획국장 해안스님, 중화사회부장 영배스님, 중화사회분과위원장 여연스님, 중화회의원 세영 학당스님, 사회부장 양상스님을 비롯 재가연대 윤남진 기획실장 등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소송취하 가능성 시사

○...총무부장 원택스님도 박원석 부장에게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이에 대해 박 부장은 “참여연대에서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 에 대한 문제를 모두 파악한 후 대안을 가지고 소송을 낸 것은 아니다. 소송을 낸 이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문제를 보는 관점도 새로 생겼다”며 소송 취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립공원 관리 무엇이 문제

개발위주 정책 환경훼손 심화

6월28일 ‘사찰과 국립공원의 올바른 관계정립’ 주제의 워크숍에서 공원 관리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돼 국립공원관리공단 성토장을 발붙게 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 양정일 환경조사국장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공원 관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양 국장은 건교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99년 발표를 인용,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환경부하가 15만배 증가했고, 생태과피지수는 생태적 생산능력의 9배 이상을 초과하는데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고 몰아부쳤다.

양 국장은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속리산 등의 파괴 사례를 제시하고 “국립공원에 대한 위협이 계속된다면 국립공원은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난개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리산은 양수발전소, 지리

자연공원법 개정

종교환경 보호 의무화

산랜드 건설과, 온천 개발, 지리산 댐 추진 등 대규모 환경 파괴 계획이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이 건설부 내무부 지역개발과가 관할하던 때의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대 오규근교수는 “자연생태 및 종경지를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국민들이 영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 보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립공원 관리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환경운동 단체에서 “그린벨트마저 무너지는 마당에 국립공원은 야생동물의 최후 사색처이자 사람들의 최소한의 휴식공간이다. 국립공원은 개발에 대한 신성불가침 지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환경부도 동의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개발 공약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관련 법 개정도 시급하다. 현용스님은 자연공원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개정 법에는 △사유재산 소유자에 대한 배려 △생태·문화·종교환경 보호 조항이 반드시 삽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을 늘고 먹고 마시는 놀이터로 인식해 단체관광 위주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인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여연스님(조계종총회 사회분과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유적의 보고인 만큼 단순한 휴양지가 아닌 생태·역사·문화 교육장”이라며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 기사원문 ‘선과 21세기’ 쉽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사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갈월사 영탑(靈塔)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미

돌이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종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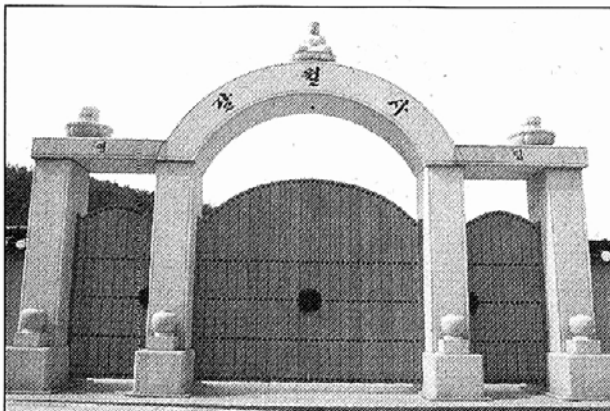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석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된 영탑은 영탑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계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영구혜택을 드립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문의: 0338)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galwa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 자주 찾아보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